



보도 일시	2022. 12. 7.(수) 14:00 2022. 12. 8.(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12. 7.(수) 14:00
담당 부서	경영기획본부 전략인재개발부	책임자	부 장 김성삼 (052-703-0681)
		담당자	차 장 김혜민 (052-703-0687)

## 버려진 안전모 새 제품으로 탄생하다

### 국내 최초 폐안전모 활용 업사이클링...7일(수)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산업현장에서 버려진 안전모가 새로운 안전용품으로 만들어진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7일(수), 울산광역시, 한국철도공사, 사회적기업 우시산, 주식회사 한국몰드와 함께 안전과 환경을 위한 「폐안전모 업사이클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 폐안전모 업사이클링 다자간 업무협약

- 일시 및 장소: 2022. 12. 7.(수) 14:00~14:30, 울산시청 본관 7층 상황실
- 참석자: 안전보건공단 송병춘 경영이사, 울산광역시 서정욱 행정부시장, 한국철도공사 원종철 미래전략실장, 우시산 변의현 대표, (주)한국몰드 최규남 대표이사

폐안전모 업사이클링이란 산업현장에서 버려진 안전모를 수거, 파쇄, 전처리한 후, 신소재를 주입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약은 참여기관 간 산업안전과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됐다.

각 기관은 협력 범위 내에서 △(안전보건공단) 사업기획, 안전 신제품 제작 기술지원 △(울산광역시) 안전 신제품 구매 등 판로 지원 △(한국철도공사) 공사 내 폐안전모 수거, 무상 제공 △(우시산) 폐안전모 전처리, 안전 신제품 판매 △(주식회사 한국몰드) 안전 신제품 개발, 제작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업사이클링 상품을 전시하고, 버려진 페트병으로 제작한 행사 현수막 사용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힘을 합치하는 의미를 더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약 1.6톤의 버려진 페트병을 모아 새 상품으로 제작, 판매하는 업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해 환경변화와 사회적기업 매출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송병춘 경영이사는 “전국 최초로 버려진 안전모를 새로운 안전용품으로 재활용하는데 공단이 앞장설 수 있어 뜻깊다.”라면서, “산업현장을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사업이 전국으로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 폐안전모 업사이클링 사업

## ✓ 업사이클링(Upcyc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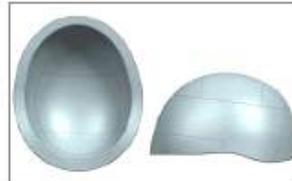
재활용품에 활용도를 더해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을 의미 

## ✓ 사업 추진내용

- ① 안전보건공단 ↔ 울산시 ↔ 기업(건설, 제조, 공공기관 등) 간 협력체계 구축
- ② 폐안전모를 재활용하여 새안전모로 개발, 판매 등 순환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업사이클링 안전모 판매가는 시장 가격의 2~30% 인상가로 예상)



폐안전모 수거, 파쇄



신소재 주입, 제작



새 안전모(경안전모)  
개발·판매

## ✓ 추진방법

1



**협력체계 구축**  
공단, 울산시,  
폐안전모 반출 기업,  
사회적 기업,  
생산업체 등

2



**폐안전모 반출**  
건설, 제조사업장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3



**수거 및 분리**  
사회적 기업  
장애인협동조합

4



**제작 및 판매**  
(기획) 사회적 기업  
(파쇄/생산) 전문업체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

5



**구매, 활용**  
울산시구군  
환경미화원 등  
안전모 필요  
사업장